

## 농협과 산학협력 체결

### 농협 불교병원 개원자금 지원 ... 농촌의료 지원사업 실시

본교와 농협중앙회(회장=정대근)가 지난 달 25일 의료 및 문화·복지사업과 교육·연구분야의 산학협력을 위한 기본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본교는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일산 불교병원과 관련 개원에 필요한 금액을 농협 측으로부터 지원 받게 된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올 상반기 일산불교 병원 개원에 필요한 2백여원이 지원된다. 이로써 개원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원마련부분은 어느정도 해소 됐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농협의 지원에 따라

본교는 농협의 숙원 사업인 농촌 의료 지원 사업과 문화 복지, 교육·연구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의료 지원 사업의 경우 본교는 일산불교병원 산하에 농촌 의료 지원 센터를 설립해 농촌 의료 지원사업 및 농촌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 등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에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해 양방과 한방의 협력을 통한 노인 의료 복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본교와 농협은 교육·연구 분야의 산학 협력과 농촌

문화 복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본교는 농협과 의대·한의대·생명자원과학대를 중심으로 △생명공학 △식품검사 연구 △한약재생산 및 유통 △신진 농업 구현 등의 교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협 측에서는 급년 상반기 중 농협 문화 복지재단을 설립할 예정에 있으며 본교는 학내 산학 협력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영전략실의 한 관계자는 "병원 개원을 위한 자금 지원을 기반으로 산학 협력 체결이 향후 학교의 질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정 체결과 함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본교와 농협이 오는 3월 중 공동기획단을 발족해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3월 말에 열릴 조인식에서 공식 발표된다.

한편 본교는 필동에 위치한 중앙대 부속 병원 인수를 위한 마무리 협의 중에 있다. 이 공간은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강의실 확충 등으로 이용된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 우수 장학 선발기준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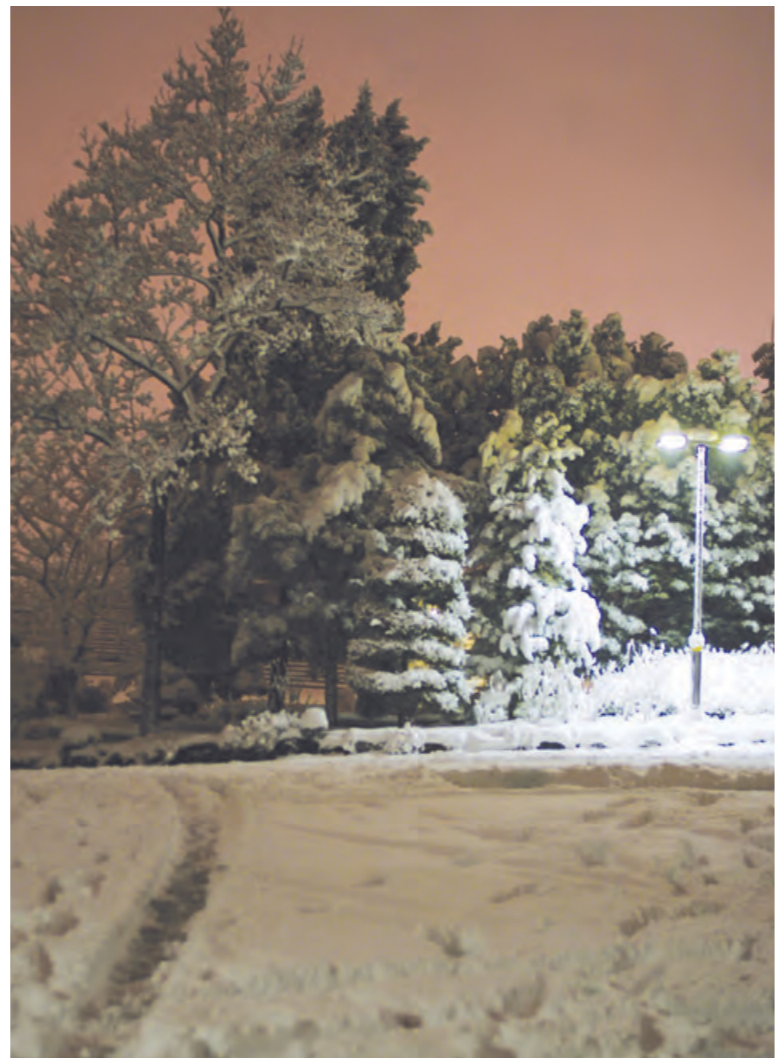
### 학업지도교수 평가 비율 증가

올해 2학기부터 우수 장학 선발 기준이 변경된다. 이번 변경 내용 결과 학업성적 반영 비율을 60%에서 50%로 줄이고 학업지도교수 평가 비율을 10%에서 20%로 늘렸다.

이는 성적 반영 비율을 줄이는 대신 학업지도교수 평가 비율을 높여 단과대 및 학과 단위의 결정권 강화로 특성화 유도를 이뤄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학업지도교수 평가는 △전공과목 취득 학점 △공인 어학 성적 △전공관련 자격증과 같은 단과대학과 특성에 맞는 기준으로 이뤄지며 평가기준에 대해 공정한 후 실시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동악의 雪夜 ... 지난 4일 내린 눈은 본교 개교 이래 3월 중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 본사사령

#### ◇임기만료

- ▲편집장 겸 학술부장 = 한보라(사과대 경제4)
- ▲편집부장 = 신정환(공과대 정보통신4)
- ▲대학부장 = 조슬기(문과대 영문4)
- ▲사회부장 겸 여론부장 = 송윤경(사과대 사회4)
- ▲기획부장 겸 사진부장 = 김진성(사과대 신방4)
- ▲문화부장 겸 생활부장 = 김하나(예술대 문창4)
- ▲문화부장 = 이지현(인문대 영문4)

#### ◇신임부장

- ▲편집장 = 최성민(사과대 경제3)
- ▲대학부장 = 최우석(불교대 불교3)

- 이상 3월 8일자

## 금강산 통일 새터 열려

### 북측 대학생 100여명 참가

‘금강산 통일 새터’가 오는 12일(이하 통일 새터)가 오는 12일 지우다우와 유뉴스, 조선학생위원회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남측 50여개 대학에서 700여명의 대학생이 참가하며 북측에서도 100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한다. 이번 통일 새터는 △상봉모임 △공동 문화공연 △금강산 공동등반 등의 행사로 진행되며 분단 후 최초로 남·북 대학생이 주인공이 돼 함께 어울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가신

청을 받은 대부분의 대학이 모집 인원을 초과해 추천 등을 통해 참가자를 선발했으며 69명으로 최대 인원이 참가하는 한신대의 경우는 학교 측에서 400여 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우다우의 한 관계자는 "참가 희망자를 전원 수용하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사가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 학생회 보궐선거 일정 확정

### 오는 23일부터 3일간 투표 실시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동우·중문4)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2004학년도 학생 자치기구 및 단과대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이며 학생회칙 전문에 위배되는 목적을 갖지 않은 3학년 이상의 재학생은 누구나 입후보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오는

15일부터 7일간 가능하며 투표는 오는 23일부터 3일간 실시된다.

이번 선거를 진행하는 단위는 지난 11월 선거가 이뤄지지 않은 총여학생회와 △불교대 △이과대 △법대 △생자대 △공대 △정산대 △예술대이다.

한편 사과대는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하며 선거일정은 중앙 선거와 동일하다.

### 교과과정 개편지원 선정 정산대 약 2억5천만원 지원

정보통신부 주관 2004년도 IT, BIT학과 교과과정 개편지원사업에 본교 컴퓨터공학과와 산업공학과가 선정됐다.

IT학과 분야에 선정된 컴퓨터공학과는 1년간 정부로부터 1억 5천만원의 지원을 받으며 BIT학과 분야에 선정된 산업공학과는 9천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2년간 진행되며 매년 업적에 따라 지원 금액이 재평가 받게 된다.

### 보리소

### 새로움, 현재, 그리고 타자와의 연결

오늘의 신세대들은 늘 새로운 것, 현재의 것, 그리고 핸드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다른 세계와 연결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값싼 유행만 찾고 전통을 무시하며, 자기의 내면세계로 침잠할 줄 모르는 경박함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창조적인 덕목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늘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서 새롭다는 것

은 어떠한 외적인 새로운 일이나 물건을 찾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깨달을 때, 때 순간마다 아름다운 삶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떠난 삶은 없다고 볼 때,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불교의 이상인 니르바나는 항상 현재의 윤회하는 삶 자체에서만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범구경에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에 충실히 살도록 하라"는 가르침이 있다. 이것을 선 불교에서는 '현성(現成)'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현성이란 이미 현재에 완전한 상태로 있음을 말하며 때 순간마다 새로운 환희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네티즌은 자기를 내면에서 찾기보다는 항상 밖에 있는 타인과의 접촉에서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나 불교의 연기의 법칙에서 보면 우리는 외부와 어떤

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모든 존재와 불가분의 깊은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깨달을 때 모든 존재가 자기 생명과 동일함을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동체 대비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새로움, 현재, 그리고 타자와의 만남의 의미를 이러한 방향으로 심화시키는 신세대 문화를 기대해 본다.

김용표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 지면안내

#### 6, 7면 주제기획

#### 100년 역사의 동악을 아시나요



명진학교부터 동국대학교까지의 100년 동악 역사를 살펴보고, 본교에 얽힌 숨은 이야기를 알아본다.

#### 4면 해설

#### 장시기 교수 인터뷰



낙천·낙선 운동을 지지하고 동참하기로 선언한 장시기(영어영문학) 교수를 만나 지지이유와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 11면 여론

#### 지상논쟁



'등록금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지상논쟁을 진행하며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과 이유를 지면화 했다.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은 언제나 독자 여러분의 요구가 있는 그 곳으로 뛰어가겠습니다.

- 하나, 지면 개편 보도면·여론면 강화, 사람면·캠퍼스생활면 신설
- 하나, 파격적인 편집 색선면 신설, 지면안내 크기 변화 등 다양한 레이아웃 시도
- 하나, 그밖에도 지면 개편에 따른 칼럼의 신설 및 지면재배치를 시도해 독자 여러분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대신문 기획·평가위원을 모집합니다.

앞으로도 동대신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동대신문사

동대신문 기획광고





2003년 하반기 감사결과 분석

# 일부 학생대표 책임감 부족 심각

## 4개 단위 무기한 예산 정지

지난 2003학년도 하반기 통상 감사 결과 일부 학생대표자들의 책임감 부족으로 감사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통상감사는 36대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동우·종문4) 산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특위)가 중앙 자치기구와 △불교대 △사과대 △경영대 △생자대 △공대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단과대는 자체감사로 진행됐다.

감사결과 △졸준위 △동연 △사과대 △생자대에 무기한 예산 정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4개

자치기구와 4개 단과대에 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정산대와 사법대는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며 법대와 공대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임기를 마친 일부 대표자들의 책임감부족이다. 이는 무기한 예산정지를 받은 단위의 징계사유가 감사자료 미제출이며 자체감사를 시행하기로 한 2개 단위가 아직 감사를 진행 중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단과대는 감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특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문제가 되고 있는 단위들의 경우 대표자들이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대부분 졸업하거나 군대를 갔다"고 말했다.

감사지연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 총대의원회 회칙에 따르면 하반기 감사는 11월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해당년도 총대에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감사지연으로 임기가 끝난 후 감사가 열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통상적으로 다음해 총대에서 감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감사는 36대 총대의원회(이하 총대)가 구성되지 않아 임기가 끝났음에도 35대 총대에서 지난 1월부터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난 35대 총대에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공대 측의 문제제기에 따라 급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학생회비는 학생들의 학생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성이 지켜져야 하며 이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현재 총대 비대위는 새터부정기인 단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학생대표자들의 '책임감 상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총학생회(회장=구지용·아간1영문4)가 지난 4일 개강한 '마당'을 개최했다. 한 학기를 전체 학생들과 함께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새내기, 재학생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개강고사와 등록금 인상 반대집회와 함께 본관 회의방에서도 진행됐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표> 하반기 통상감사 결과

징계내용	단위	시행세척 및 징계사유
징계없음	교직원지원위원회 학부외 불교대 경영대 아간강좌총학생회	
주의	총여학생회	2학기 활동 미비
엄중경고	문과대	자료제출 시한 넘김 감사자료 일부 미제출 감사자료 내용 미비
	총학생회	기념품 1점 미제출 자료제출 시한 넘김 금전출납부 일괄 기입
	총대의원회	회의록·공약 평가서 미제출 집행부 1인 불참 자료제출 시한 넘김
예산정지 3주	예술대	감사자료 일부 미제출 감사자료 내용 미비 집행부서장이 올바른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 피감사 주체 면담감사 불참
무기한 예산정지	졸준위 동연 사과대 생자대	감사자료 미제출로 감사 진행 못함

# 학복위 봄학기 특강 접수

## TOEIC종합반 정보처리실기 등 개설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박덕수·역교4)가 봄학기 특강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중앙도서관 앞에서 받는다. 개설 강좌는 △YBM 시·sa/T&E =TOEIC종합반, 김대균 실전R/C △뱃에듀=TOEIC기초, TOEIC실전, 문법 집중반 △서해영=이익훈 토익 L/C △김지남=이익훈 토익 R/C △장현주=정보처리실기 △송지아=컴퓨터 활용 △육

근 수 =MS-EXCEL, POWER POINT이며 강의는 오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추가 접수 및 공개 강의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이다. 학복위는 올해 역시 과목별 도우미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도우미는 종강 후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으며 교재 역시 무료로 제공된다.

## 봄학기 사회봉사 단원모집 오는 10일 부터 3월 간

참사람 봉사단(단장=이관제·통계학)이 오는 10일부터 3월 동안 봄학기 사회봉사 단원을 모집한다. 사회봉사 단원은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외 150여개 기관 중 활동내용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33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하며 1학점 패스가 인정된다. 학점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봉사활동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이다.

# 축구부 대통령배 대회출전

## 지난 6일 홍익대와의 첫 경기 승리

본교 축구부(감독=김용해)가 오는 19일까지 남해스포츠파크에서 진행되는 '제52회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에 참가했다. 총 52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본교 축구부는 홍익대, 현대미포조선과 같은 조에 편성됐다.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본선은 조별로 두 팀이 진출하게 되며 본교는 지난 6일 홍익대와의 첫

경기에서 승리함에 따라 다음 경기결과에 상관없이 본선에 진출한다. 본교는 홍익대와의 경기에서 전반 27분 김명중(체교1)선수의 프리킥이 성공해 1:0으로 승리했으며 내일 1시 30분 현대미포조선과 2차전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해 축구부 임상화 코치는 "현대미포조선이 우승후보로 꼽히는 강팀이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내시설사용 인터넷신청

## 강의실 대운동장 만해광장 등 해당

시설관리팀(팀장=백경선)이 지난 2일부터 교내시설 사용신청 인터넷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강의실, 대운동장, 만해광장 등의 시설에 해당되며, 특히 빈 강의실을 사용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하고자 하는 시간대별, 보유시설별, 수용인원수별 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설을 장기 사용할 경우와 학과관 소강당 사용을 원할 때에는 시설관리팀에 신청해야 한다.

# 경주캠 소식

## 경주 본관 3천평으로 규모확대

### 학사보고회에서 홍기삼 총장 밝혀

2006년 건학 100주년을 맞아 '일류동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경주캠퍼스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지난 2일 원효관 소강당에서 2004학년도 학사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홍기삼 총장은 상위권의 교육중심대학으로 도약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해 △건학 100주년 기념관 3000평으로 규모확대 건립 △교육 여건 강화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을 것을 밝혔다. 홍 총장은 "건학 100주년 기념관을 기존 2천 200평에서 3천평으로 확대해 건립할 것을 이사회에 상정했다"며 "200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관이 3천평 규모로 확장되면 설계·시공 업체 선정, 건축허가 등으로 인해 준비기간이 6개월 가량 소요되며 착공시기 또한 기존 5월에서 연기될 전망이다.

# 신라문화연구소 학술회 개최

## 교육인적자원부·포스코 특별지원 받아

본교 경주캠 신라문화연구소(소장=최효식 국사학)가 오는 12일 프레젠테이션에서 '7세기 동아시아 국제 정서와 신라의 삼국통일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4회 신라문화학회'를 개최한다. 정병준(사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주제발표는 △7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왜국의 대한 정책=연민수(부산대)교수 △수

의 중국통일과 삼국의 대외외교 전략=김은숙(교원대)교수 △삼국의 외교적 협력과 경쟁=김수태(충남대)교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신라문화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예년보다 규모가 2배가 더 큰 행사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포스코의 특별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 동국만평

장미애 substory@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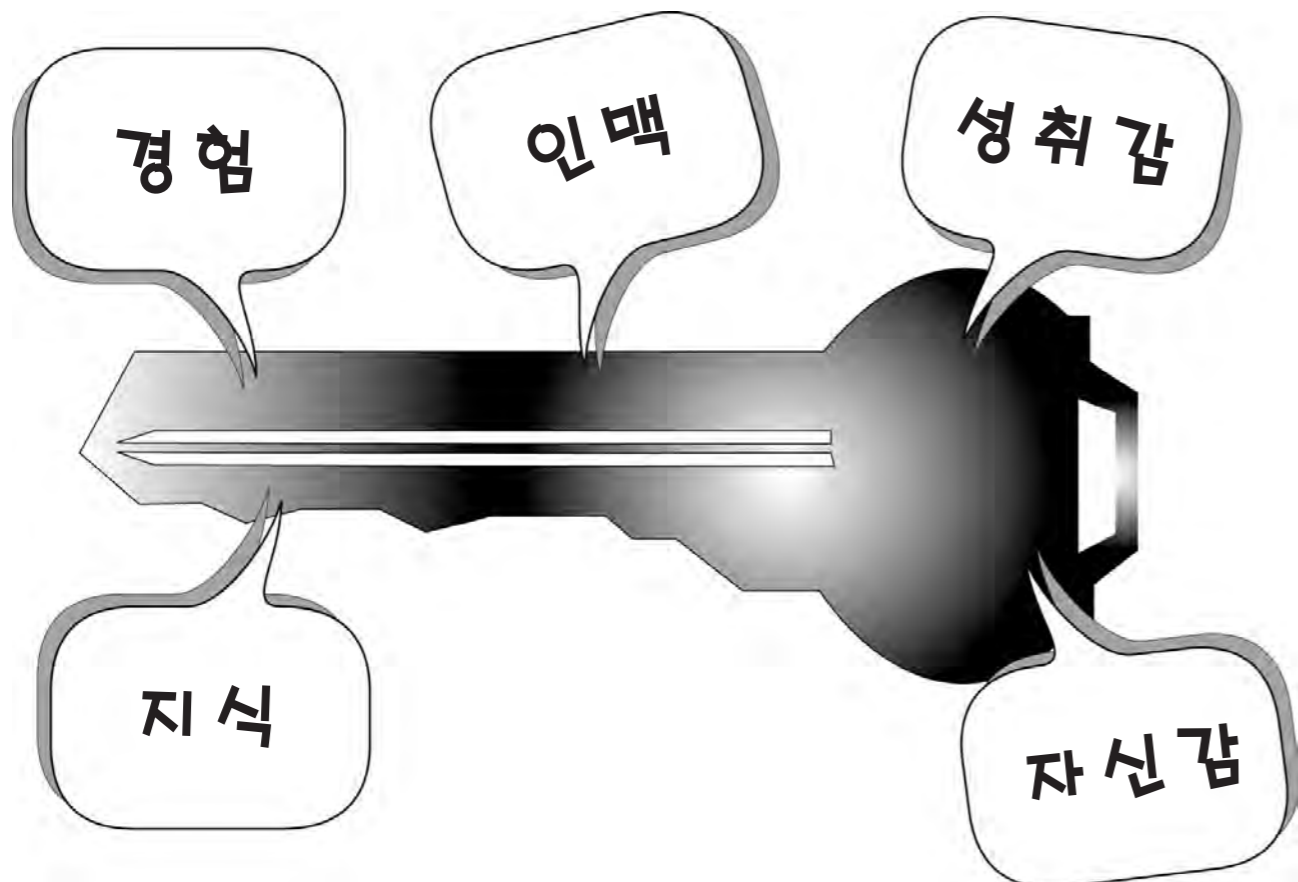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김주환  
부주: 고재석  
편집국장: 주한길  
편집장: 류병성  
편집장: 최성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 수습기자 모집광고



# 준비된 만능열쇠, 당신의 것입니다!

동대신문사에서 제46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열정 넘치는 신입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일 시 : 3월 25일(목) 오후 6시
- ▲ 모집인원 : 00명
- ▲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 ▲ 원서교부 : V동 1층 동대신문사
- ▲ 문 의 : ☎2260-3491~2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사설

이제 동국이 해야 할 일

일류 동국을 향한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본교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던 공간부족문제와 불교병원 개원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수 심보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필동 중앙대학 부속병원 인수와 농협과의 산학협력 체결이 바로 그것이다.

서 긍정적으로 기대된다. 일산불교병원 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1000만 불자와 전국 농민들의 모 병원으로 거듭나는 것에 성공한다면 국내 5대 메이저병원 진입은 기정사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몇몇 대학에서 실시한 기업과의 협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금융권과 협력을 체결했다는 점, 더욱이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농협과 동국대가 협력했다는 점은 본교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 확실시 된다.

이제 학교가 해야 할 일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다. 등록금문제, 교직원 임금문제 등 학내 구성원간의 갈등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해 함께 가야 한다. 또한 학내 주체들 역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보태줘야 할 것이다.

자금은 두 번 다시없을 기회다. 동국 100주년이 '우리만의 축제'로 끝나지 않기 위해 전 구성원이 힘을 모을 때다.

4천 8백여명 대지의 중대병원 인수는 '남산 고도제한'으로 인해 끊임없이 공간문제에 시달려온 본교로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학내에서만 공간문제를 해결하려던 본교가 외부로의 팽창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로 다가온다.

더욱 주목할 만한 성과는 농협과의 산학협력체결이다. 이번 협정체결로 본교는 불교병원 개원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자금문제를 대부분 해결했다. 또한 불교병원개원에 대한 최종 컨설팅 결과도 2008년까지 주변인구가 40만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 측면에

메아리

4천 5기

▲1977년 11월 26일, 세계 주니어 페더급 결정전이 열리고 있는 파나마의 어느 경기장.

이제 3라운드인데 이미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한 선수가 링 한편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전 WBA 밴텀급 챔피언 홍수환, 이날 경기에서 승리하면 한국 프로복싱 사상 최초로 두 체급을 석권할 수 있지만, 11전 11케이오승을 자랑하는 파나마 신예복서 헥토르 카라스키아에게 연이어 강한 주먹을 맞아 2라운드에만 연거푸 네번이나 쓰러졌다.

▲'국민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부분을 무리하게 낮추려는 것이 오히려 시대착오.'

지난 2월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결국 선거연령을 현행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소속 의원들을 주축으로 선거연령을 민법에 규정된 성인연령인 만 20세로 향풍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서다.

즉, 선거연령을 조정하려면 민법부터 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하므로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적인 합의없이도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인터넷 실명제를 분회회에 상정시킨 정개특위가 선거연

령조정과 대학내 부재자투표소설치요건 완화 등 대학생의 투표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할 때 또다시 '국민'을 거론하는 지 의문이다.

게다가 만 18세가 되면 병역의무를 지니고 결혼도 할 수 있는데 유독 투표소에 발을 디딜 수 없다는 것은 결혼보다 투표를 더욱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정치인들의 깊은 뜻에서인가.

결국 선거철이면 되풀이되는 시민들의 참정권 확대요구는 '표의 논리'를 앞세운 보수정당의 당리당락추구에 이번에도 넘어맞은 것이다.

▲2라운드에 네번이나 쓰러졌던 홍수환 선수는 3라운드가 시작된 지 단 48초 만에 상대를 쓰러뜨렸다. 홍 선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리라는 모두의 예상은 빗나갔고 4천 5기의 신화가 탄생한 것이었다.

선거연령 하향조정은 지난 60년 21세에서 20세로 조정된 후 40년 이상 끊임없이 제기돼 온 요구지만 그 때마다 연이어 무시당해 왔다.

그럼에도 이에 굴하지 않는 시민·학생들의 굳은 의지가 언젠가 4천 5기, 아니 10전 11기의 신화를 이뤄내지 않을까.

최성민 편집장  
qwertewq@dongguk.edu

낙천·낙선운동 동참 선언한 장시기교수 인터뷰

“지역주의 옹호자 반드시 낙선돼야”

‘더 이상 정치의 방관자, 역사의 소외자로 남아 있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유권자 독립선언

지난달 19일 교수 200명이 2004 총선 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벌이는 낙천낙선운동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이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총선연대는 학계의 폭넓은 지지로 활동에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본교 홍윤기(철학) 장시기(영어영문학) 김무곤(신문방송학) 박순성(북한학) 교수가 이 선언에 동참했다.

이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총선연대 집행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장시기 교수를 만나 낙천·낙선운동에 동참한 이유와 활동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낙천낙선운동에 동참하는 이유.

=시민으로서 현실정치를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감시가 당리당락만을 일삼고 권력형 비리와 부패로 얼룩지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인 것이다.

또 지식인으로서 연구실에만 있는 것보다 우리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모태를 만들고 공동체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대한 정당성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선운동보다는 낙천낙선운동을 택했다.

-낙선운동 위원관료에 대한 견해는.

=낙천낙선운동은 불법이나 합법적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것이다. 정치참여라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자발적으로 행사하는 것인데 이를 실정법에 적용함으로써 위헌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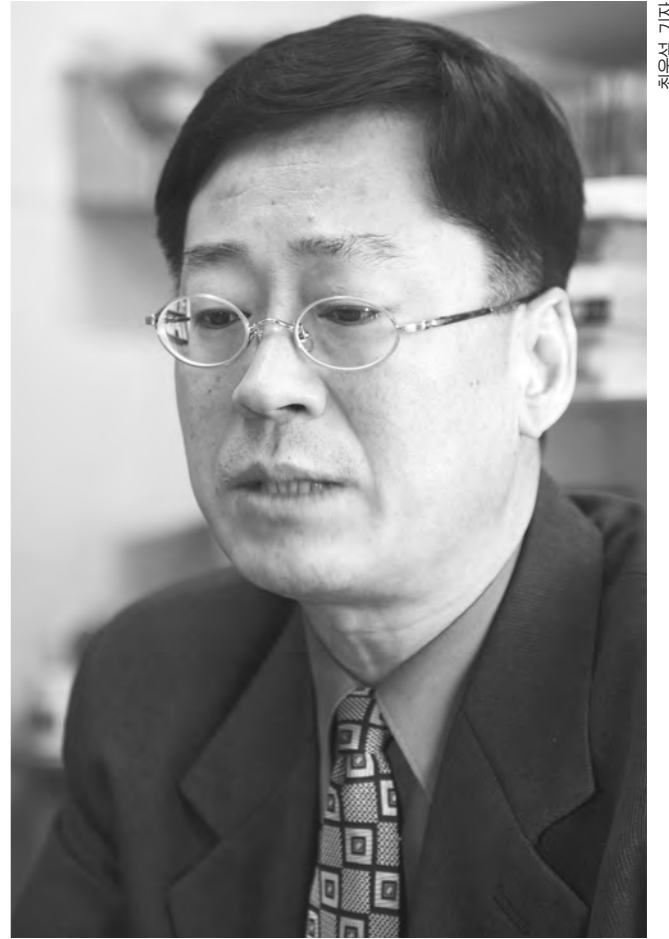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낙천낙선대상자 선정은 주로 총선연대의 실무진이 담당하고 교수들은 낙선운동의 방향을 정하거나 정당정책평가 중점적으로 활동한다.

정당정책평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난 4년 동안의 정당간 정책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한 표 행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 △통일 △노동 △여성 △정치 △문화 등 총 10개 분야로 나뉘어 각 분야별로 10여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교육·문화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분야 중에서도 사립학교법에 대한 각 당의 정책 비교분석 등을 준비 중에 있다. 정당정



최우석 기자

책평가가 이달 말즈음 발표될 예정이다.

-낙천대상자선정의 기준에 대해.

=지난 1, 2차 낙천대상지는 주로 권력형 비리와 정경유착, 당적변경을 일삼는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결여된 정치인은 우선적으로 낙천돼야한다. 또 구시대적인 정치행태를 보이는 과거지향적인 정치인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특히 지역주의적인 발언을 통해 지역간 대결구도를 강화시키거나 구시대적인 색깔론을 제기함으로써 남북통일에 저해되는 정치인이 또다시 당선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밖에 비합리적인 활동을 하거나 교육에 대한 사대주

의적 발상을 하는 정치인도 낙천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시급하게 개혁해야 할 정치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본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많은 지역구의원들은 재선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발전에 지역적인 요소를 강요하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정작 민생을 살피는 큰 정치에는 소홀해져 나라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구도 중요하지만 이는 지방자치 의원에게 어느 정도 맡기고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한 입법행위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전과제도 문제점 분석

객관적인 면접 평가기준 마련돼야

교수 주관 개입 등 공정성 떨어져 ... 제도보완 시급

지난 1월 30일 발표된 2003학년도 전과 결과와 관련해 일부 학과 지원 학생들의 항의가 계속되는 등 전과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전과제도는 전공 선택권 확대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평균 평점을 3.0에서 2.5로 낮추는 대신 각 과 교수들이 실시하는 면접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원 학생들의 전공 수행 능

력을 평가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면접이 객관적인 기준과 심층성 없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김영탁(불교3)군은 "면접이 대부분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면접에서 교수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면접을 진행한 전과 희망 인기가 한 교수의 "학생들 중 교수를 만나러 오면도 불구하고 머리가 단정하지 않은 학생이 있어 불쾌했다"라는 말로 미루어 볼 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어느 과의 경우 평점 3.0이하의 학생들은 전원 전과 신청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밝혀져 '자체 기준'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학교측도 전과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개선을 위해 전과 대상 학과 과목의 점수를 통해 선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전과제도.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일부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

시급한 제도 보완에 노력을 기울여 더 이상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2004-봄학기 사회봉사 단원모집 (학점신청)

- 신청자격 : 재학생 자유선택
- 신청기간 : 2004. 3. 10(수) ~ 3. 12(금)
- 동국참사랑봉사단 예비교육이론 및 현장체험학습
  - 가. 일시 : 2004.3.13(토) 08:20 ~ 17:00
  - 나. 장소 : ▶ 특강 - 본교 중앙당 08:20까지 시간임수
    - ▶ 현장 체험 학습 - 한사랑 마을·향림원(경기도 광주 소재)
- 준비물 : 중식 및 간편한 복장 착용
  - \* 단, 예비교육은 최초 봉사 활동 신청시 이수해야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재학기간 중 1회 이상만 이수하면 됨.
- 봉사활동기간 : 2004. 3. 17(수) ~ 2004. 5. 29(토)
- 봉사활동방법 : 활동내용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 봉사활동 안내 자료 : 3월 8일부터 인터넷 게시 및 각 단과대학 교학과, 동국참사랑봉사단에 비치할 예정임.
- 봉사활동대상기관 :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외 150여개 기관
- 사회봉사활동 학점 신청 및 성적처리 방법
  - 가. 학점신청 : 신청방법 추후 공지
  - 나. 평가방법 : Pass 또는 Fail
  - 다. 성적평가
    - (1) 학점 인정 : 봄 학기 기간 중 33시간 이상 활동 시 (교과목: 사회봉사, 이수구분: 자유선택, 1학점 Pass)인정
    - (2) 학점인정시기 : ▶ 겨울학기·봄학기 활동자(1학기 기말고사 성적에 학점 반영) ▶ 여름학기·가을학기 활동자(2학기 기말고사 성적에 학점 반영)
    - (3) 전체 졸업이수 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성적 산출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 (4) Fail의 경우 학적부 및 학업성적표에 기록하지 않음.
  - \* 사회봉사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이수 학점으로는 재학기간 중 2학점까지 인정함.
- 특 전 : 사회봉사 인증서 발급/성적우수 장학선 선발시 시간인정/우수봉사자 포상 및 장학금 지급/출장수여
- 최근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채용 과정에서 봉사활동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봉사단 홈페이지 :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동국참사랑봉사단

동국참사랑봉사단

학생상담센터 이용 안내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재학생 여러분의 풍요로운 대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심리검사 : 다면적인성검사(MMPI), 성격유형검사(MBTI), Strong 진로탐색검사, 적성탐색검사, 학과와 직업선택을 위한 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를 수시로 실시합니다(무료). 심리검사 이후 해석은 물론 여러분의 성격, 진로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개인상담 : 전문상담원과 상담센터 관계 교수님이 학업, 성격, 대인관계, 직업 및 진로선택 등 대학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적으로 내방상담, 전화상담(Tel.2260-3931, 3930), E-mail 상담을 실시합니다.
  - 집단상담 :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함께 문제를 해결해갑니다.
  - 진로지도 : 개인의 적성 흥미 소질 능력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진로희망 고강과 합리적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해외유학안내 및 URP추천서 발급 : 해외유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안내 상담을 실시 하며, 미국 방문시 비자발급을 위한 URP추천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률'에 따른 고충상담 : 성희롱등 남녀차별에 관한 고충을 상담해 드립니다.
  - 교양강좌개최 : 교양과 정서함양을 위해 학내외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 강연을 실시합니다.
- \* 학생상담센터는 본관 2층에 있으며, 전화는 2260-3931, 3930입니다.

학생상담센터

이런 심리검사가 있어요

새로운 시작과 함께 찾아오는 크고 작은 기대와 설렘들, 이 순간을 보다 의미있게 보내고 싶어...

나와 너를 더 잘 이해하고 진로 및 적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사가 있는데, 우리 함께 심리검사 받으러 갈까요?

검사종류	소요시간	비용
MBTI(성격유형검사)	30~40분	무료
MMPI(다면적 인성검사)	50분	무료
학과와 직업선택을 위한 적성검사	70분	2,000원
적성탐색검사	30분	무료
Strong 직업흥미검사	30분	무료
Strong 진로탐색검사	30분	무료

\* 학생상담센터(본관 2층, 구내전화 3931)로 오세요.  
\* 학과·동아리 단위의 단체(20명 내외)는 출장 검사도 가능합니다.

학생상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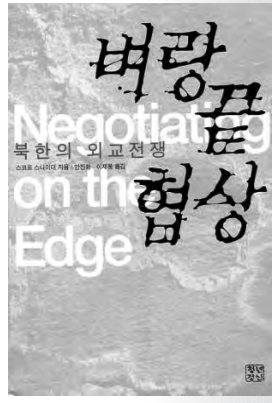
# BOOK 카페

# 북한의 협상 방식, 이유 있다

『서평』

## ‘강-약-중강-약’에서 ‘약-약-소강-약’으로 태도 변화

정확히 10년만에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다시 부각되었다. 이제 6자회담이라는 새로운 대화 틀결기를 마련함으로써 핵위기 국면은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핵문제는 안개속을 걷는 듯 하다. 아마도 6자회담을 시작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오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벼랑 끝 협상

스코트 스나이더 저  
이재봉 옮김  
청년정신 펴냄

이러한 시점에 지난 해 청년정신 출판사에서 시의적절한 내용의 책을 번역 출간한 바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 스코트 스나이더의 99년도 저서 'Negotiating on the Edge'가 '벼랑 끝 협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된 것이다.

이 책은 정전협정부터 시작된 북한의 외교 대화유형에서부터 추적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주요한 사례들을 광범위한 자료조사와 직간접 인터뷰를 통해 치밀하게 분석 정리 해주고 있다.

특히 북미간 핵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중심으로 북한의 협상행태의 특징을 정리해줌으로써 협상 실무자들에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관련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북한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가치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저자인 스나이더의 분석 자세에서 기인한다. 그는 북한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결코 드러나는 현상만을 놓고 평가하

지 않는다.

1장에서 북한의 세계관과 형성과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북한만의 독특한 유교식 사회주의 문화 그리고 유격대식 사업방식의 특성을 깊은 이해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해 "그냥 그들은 미쳤다"라고 단

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모든 회담 첫날 발표되는 북한의 성명을 가지고 회담 전체를 전망하는 보고서 또는 기사는 자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오늘날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 협상 태도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즉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역 벼랑 끝 전술로 맞받아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협상행태를 충분히 분석하고 전술적으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지난 2월 2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6자회담은 스나이더가 제시한 지금까지의 북한의 협상행태의 법칙성과는 다르다는 점에 필자는 주목하고 있다. 즉 '강-약-중강-약'의 형태가 아니라 '약-약-소강-약'의 형태를 보였다. 처음부터 북한은 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강하게 나타내지 않았으며, 마지막날 기자회견에서 약간의 불만을 표한 것이 전부이다. 이는 북한의 처지가 전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보다도 빠른 변화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즉 강공을 취할 경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고립과 경제위기가 있을 뿐이다.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화를 위해 김정일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국제사회와 선린 우호관계를 회복하는 것 뿐이라 할 수 있다.

진희관  
북한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학술단신

### 만해 한용운의 가장 오래된 글 발견

만해 한용운이 1910년 4월 작성한 '동계서록' 서문이 발견됐다.

이 글은 만해가 대구 동화사에서 박유운 스님에게 계를 받은 36명의 승려와 재가 신자를 위해 지은 것으로 백담사 만해마을 연구실장인 김광식 박사에 의해 공개됐다.

이는 이제까지 알려진 만해의 가장 오래된 글인 '조선 불교유신론'에 비해 3여 년 전의 것으로 만해 사상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고전적보존협회 오늘 창립

전국 각지의 고전적(古典籍)을 보존하기 위한 '한국고전적보존협회'가 오늘(8일) 창립된다.

협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 규장각 등 고전적을 소장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로 구성되며, 앞으로 고전적 보존을 위해 △종합목록 작성 △전통가 양상 △고전적 지정기준 설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고전적 정보와 작업을 위해 △목록 및 원문, 해제 디지털화 △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 등을 중장기 사업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창립식은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도서관.

## 학술동아리 탐방 기획 - ① 여명

# 이론과 함께 '행동' 하는 학술동아리

실과 바늘이 있다.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하면 천을 꿰뚫 수 있지만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회와 학문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에 대한 애정을 가진 학문의 탐구는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토대가 될 수 있지만 둘 사이에 괴리감이 생긴다면 발전의 가능성은 무너지고 만다.

이러한 부분에 주목해 사회 속 학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공부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학술동아리 '여명'의 회원들이다. '여명'은 1989년 우리 사회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야간강좌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야간강좌에는 직장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학생에 비해 사회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여명'은 사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학문의 힘을 빌리는 토론회와 세미나를 자주 가진다. 학기 중에는 '시대읽기'라는 토론회를 통해 그 주에 시사적으로 쟁점이 된 주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눈다. 또한 방학을 이용해서는 시사적인 내용보다는 학문적 수준이 높은 교양을 쌓기 위한 학술 세미나를 진행한다. 주로 기초철학, 유물론, 관념론, 정치경제학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학술동아리 '여명' 회원들은 학문의 힘을 무기로 직접 사회로 뛰어 들 때 비로소 결실을 맺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는다. 이들은 매년 노동자대회나 농민대회에 참가해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눈다.

"대학생은 예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이 부족해 아쉬워요."

하지만 학술동아리 '여명'의 학생들은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힘을, 가능성을 믿는다.

학술동아리 '여명'은 앞으로도 학문에 대한 탐구와 함께 반전 집회나 철거민 농성 등 현장을 함께 하며 틀 속에서 갇힌 이문가이기를 경계할 것이다.

"관념의 늪에서 나와 스스로 돌을 던져라"라는 말을 실천 할 수 있는 '여명'이 되기를 바란다.

김지희 기자  
gazzababo@dgu.edu

## 김주환 지리교육과 교수의 '사상가 이야기'



### 실용적 지리지식 집성한 이중환

(1690-1756)

청담 이중환(1690~1756)은 조선후기의 지리학자로 이익의 실사구시 학풍을 계승하였다. 그는 여주 이씨 가문에 태어나 1713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1718년 김천도찰방(金泉道察訪)을 거쳐 1723년 병조정랑(兵曹正郎)을 지냈다.

18세기에 극심했던 당쟁에 연루되어 수차례의 형을 받고 38세에 유배된 후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30년간 전국을 방랑하면서 뛰어난 문필의 재능과 실용적인 지식을 토대로 지리서인 '택리지(擇里誌)'를 저술하는 등 다양한 면에 걸쳐 광복함만한 연구업적을 남겼다.

택리지는 팔역지(八域誌), 팔역가거지(八域可居地)등의 다른 이름으로 된 전사본들이 전한다. 택리지는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지며, 전편인 팔도총론(八道總論)에서는 각도의 역사, 지리, 지세, 기후, 산물, 인물, 취락 등을 설명하였고, 후편인 북거총론(卜居總論)에서는 지리(地理), 생리(生理), 인심(人心), 산수(山水)의 네가지를 들어 사람들이 살만한 곳을 서술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풍수지리사상의 틀에서 벗어나 학문연구에서 새롭게 과학적이며 실용적인 접근방법을 택한 것은 후기 실학과 학자들의 학문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택리지의 가치와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택리지는 이전의 동국여지승람과 같은 관찬 지리지에서 볼 수 있었던 백과사전식 나열에서 탈피하였으며, 실학의 영향을 받아 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리지식을 기술하였다.



또한 자연지리적 현상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나름대로의 해석을 곁들였다.

그 뿐 아니라 수운의 이

용을 강조하고 상업을 경시하지 않았으며, 환경결정론적인 사고, 환경가능론적인 사고 등과 같은 현대 지리학의 주요 개념들을 개괄적으로 잘 소개하였다. 또한 지리적 현상의 뛰어난 관찰력을 엿볼 수 있는 내용도 보인다. 그 예로는 대관령 부근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계획적(無界劃) 화전(火田)의 개발과 그에 따른 토사의 문제, 수레보다는 배를 이용하는 것이 물류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수운의 문제 등을 잘 간파하고 있었으며, 지형관찰에서는 철원부근의 용암대지에 관한 언급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택리지는 조선 후기에 편찬된 본격적인 인문지리적 접근을 갖춘 새로운 유형의 지리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택리지는 조선시대에 가장 널리 보급된 책 중의 하나로 필사본으로 전해오고 있으며, 1912년 육당 최남선의 교정으로 조선광문회에서 활자 인쇄본으로 간행되었다.

청담은 당시 사회전반의 변화 분위기속에서 사대부와 농공상의 구분을 단순히 직업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지배계급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생활활동과 상업적 농업을 중시하고 지리적 환경조건에 적합한 수운과 교역(交易)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지금과 같이 어지러운 세상에 청담과 같이 사회현상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또 종합할 수 있는 혜안이 부럽다.

학술 기고를 발송합니다. 원고지 8~10매 분량의 간추린 논문이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글을 기다립니다. 자격이나 분야는 제한이 없고 채택된 문구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 건학100주년기념 교사(校史) 자료 수집 안내

본회에서는 건학10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06년 명진학교 개교당시부터 현재 동국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사(校史)자료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목 적 :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명진학교, 중앙불전, 해화전문, 동국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여 전시함으로써 본교 100년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동국인의 긍지를 고취시켜 일류대국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함.
  2. 수집 기간 : 2004년 1월 - 2006년 4월 까지
  3. 수집 장소 : 동국대학교 박물관
  4. 교사자료 수집내용
    - 1) 건학에 기여한 선각자 및 사찰에 관한 자료(1906년 전후 자료)
      - 가. 선각자 : 이보담, 김월해, 김우문, 박보봉, 김석음, 홍철조, 김보문, 김포용, 김현업(9인)
      - 나. 사찰 : ▶ 대법산 : 원흥사(서울)
        - ▶ 중법산 : 봉은사(광주) 분선사(양주), 용주사(수원), 마곡사(공주), 속리사(보은), 송광사(순천), 금산사(금구), 해인사(해진), 통도사(양산), 동화사(대구), 월정사(강릉), 유점사(고성), 석왕사(안변), 귀주사(함흥), 보현사(영변), 신광사(해주)
    - 2) 문헌자료
      - 가. 서적 및 정기간행물 : 각 기관에서 발행한 서적 및 간행물
      - 나. 문서, 문건 : 공문서, 입부일지, 회의록, 대자보, 학생활동문건 등
      - 다. 각종 증서류 : 학위증, 학생증, 성적증명서, 교직원신분증 등
      - 라. 기념인쇄 및 홍보물 : 다이어리, 달력, 카드, 팸플렛, 포스트, 케네트 등
    - 3) 기념품 : 교표, 교기, 우승컵, 우승기, 상패, 각종 행사기념품
    - 4) 복식자료 : 교복, 교모, 체육복, 교관복, 학군단복, 실습복, 행사티셔츠 등
    - 5) 사진자료 : 학교전경, 수업장면, 앨범, 슬라이드, 필름 등
    - 6) 동문 및 교직원 기념자료 : 휘호, 서예, 유품 등
    - 7) 집기 및 비품 자료 : 각종 인장, 현판 등
- ※ 문의 :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 (02)2260-3120, 박물관 (02)2260-3462

건학 100 주년 기념 사업회

## e-Class와 사이버수업 안내

사이버공간의 교육적 활용을 위하여 동국대학교는 e-Class와 사이버수업을 지원합니다.

e-Class는 off-line 수업자료의 저장과 전달, 과제물 부과와 제출, Q&A,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사이버공간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실수업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이버수업은 e-Class의 기능뿐만 아니라, on-line 전용 또는 on-off line 혼용수업을 할 수 있어서 교수와 학습자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만큼 반복적으로 교육과 학습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바람직한 학습 활동은 교수·학습자 또는 학습자 간의 활성화된 상호작용(Interactive)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효과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수강생의 호응도를 끌어올려 유익한 강의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e-Class 또는 사이버수업을 진행하시려면 우선 가상대학 플랫폼의 기능을 이해하시고 숙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가상대학 홈페이지의 접속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가상대학 홈페이지 URL : http://cyber.dongguk.edu 또는 학교홈페이지에서 관련기관의 '가상대학'을 클릭하면 됩니다.
- 2) 교수님과 학생의 User\_id와 Password는 '학교 홈페이지'나 '드림스' 접속의 ID와 PW가 동일합니다.

e-Class와 사이버강좌의 사용방법은 가상대학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자세히 Upload하여 놓았습니다. 사용법을 숙지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가상대학 교학과(02-2260-3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 대 학

## 봄학기 여학 특강 (봄 1차, 3.15 - 4.16)

	영어회화	Presentation & Interview Skills	Writing & Speaking	중국어회화(가초)	일본어회화(가초)	영어패스제 집중 대비반(TOEIC 700반)	CNN취취
강의 시간	8:00-8:50 17:30-18:20	8:00-8:50	8:00-8:50 17:30-18:20	8:00-8:50	8:00-8:50	18:30-19:45	18:10-19:30
정원	15명	12명	15명	15명	15명	40명	30명
교수	오전 : Steven Kendall 오후 : Irene Ruth Paul	Modesto Tumaeder	Jayne	방홍화	고영란	정희영(교과부장), 김봉경(교과부장)	정유진
수강료 (일반생/기)	8만원	9만원	9만원	8만원	8만원	13만원	6만5천원
특징	미국영국캐나다 등 원어민 회화	외국어업인터뷰,이력서작성	체계적영작문지도	중국인연변대학출업	동경대 석사경희대 석사출업	트루일클리쉬 전문강사 전 박종우(아원강사)	미국고교오스트리아대학출업 OAE출업전문강사
강의기간	3월 15일(월) ~ 4월 16일(금) : 5주, 주 4일 수업						
문의	위치 : 동국대학교 해학관(G) 1층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 문의전화 : 2260-3590/3471 근무시간 : 오전 9:00 ~ 오후 5:00						

수강생 특혜 1. 교제 무료 제공  
2. 토익 700반 수강자 : 가. 4월 교대 특약시험 무료 나. 온라인 모의토익 1회 무료

## 언어 연구 교육원

## 전통사찰음식 조리강좌 수강생 모집

1. 강 사 : 선재 스님(사찰음식연구원, 가정교육과 객원교수)
2. 교육기간 : 3월 17일 ~ 6월 2일(10회)  
매주 수요일 10:00 ~ 13:00
3. 대 상 : 동국인 남녀 누구나 선착순 30명
4. 진행방식 : 이론 + 조리실습 + 시식
5. 교육장소 : 학림관 조리실습실(사범대 1층)
6. 수 강 료 : 70,000원(재료비 포함)
7. 접 수 : 3월 9일(화) ~ 11일(목), 여학생실
8. 문 의 : 여학생실☎ 2260-3058, gender@dongguk.edu

여학생실 · 가정교육과

# 100 여년 역사의 동악을

## 명진학교에서 동국대학교까지

돌발퀴즈, '동국의 애칭인 동악의 유래는 무엇?'

정답은 조선 중기 시인 이안눌의 호라고. 동악 이안눌은 예전 우리학교의 학림관 근처 동산에서 당대 명사들과 동악시단이라는 모임을 갖고 시를 지으며 풍유를 즐기던 대학자로 유명했다.

어느새 건학 100주년을 2년여 앞둔 지금 본교 역사에는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많다. 그렇다면 '동악'의 역사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

본교는 지난 1906년 불교계가 불교 교육의 중흥을 이루기 위해 근대적 교육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려 원흥사에 전문학교 수준의 불교학교인 '명진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이어 '중앙학림'을 거쳐 '혜화전문학교'로 개칭됐다.

불교의 근대화와 민족자주정신을 내세우며 불교혁신운동을 했던 학생들이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일제시기 여러 번 강제 폐교당하기도 했다. 이런 강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우리선배들은 민족의 내일을 우리것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활동과 창작활동을 계속했다. 때문에 다른 사학에 비해 많은 선배들이 투옥되고 강제징집되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해방 후 혜화전문학교는 지금 본교 자리인 중구 필동으로 교사를 옮기고 종합대학

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다. 이때 전국 사찰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국 발전을 위해 약 5백만 평의 토지를 기부했다.

이렇듯 많은 사람의 노력과 마음을 모아 본교는 1946년 동국대학으로, 1953년에는 마침내 일제강점기의 시련과, 6.25동란의 비극을 딛고 거친 종합대학교인 '동국대학교'로 승격돼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듯 우리가 품고 있는 동국의 역사는 우리 근대사의 시련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 6.25전쟁 당시에도 수많은 양의 도서와 자료가 불타고 건물도 파괴되는 등으로 피해가 있었으나 한 교직원인 학적부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는 등의 노력으로 완전히 보존될 수 있었다.

또한 4.19혁명 당시 동국인들은 곧은 기상과 의기를 온세상에 펼쳤다. 독재자 이승만을 몰아낸 4.19혁명은 선봉에 나선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성과였다. 이를 기리는 동우탑은 오늘날 만해광장 위에서 우리를 굽어보고 있다.

동국은 이처럼 꾸준한 교육시설 향상과 제도확충을 하며 발전해 왔다. 1979년 경주 캠퍼스 건립, 1983년 동대부속 한방병원 개원 등 '동악'은 현재 건학 100년을 맞이하고 앞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하고 있다. 이에 학내 구성원들이 모여 '변화하는 동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 전국 사찰에서 유능한 승려들을 모아 흥학과 포교의 근대화를 통해 한국 불교 근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원흥사 전경.



▲ 일제의 식민지화와 민족말살책에 의해 폐교의 비운을 겪고 8·15 조국광복 이후 다시 개교한 동국대학 초기 교문.



▲ 혜화동 소재의 교사로는 대학 승격에 적합하지 않아 현 교지인 필동으로 옮긴 후 동국대학 교사전경(현 학림관 터).



▲ 현 학생회관 터 옆에 자리잡고 있었던 황건문은 지금의 정문인 생기기 전에 동국인이 통학을 했던 곳이다.

# 아시나요

## 우리학교에 얽힌 숨은 이야기

하나. 명진관, 구중앙도서관, 본관 건물에는 큰 위기가 있었다는 데.

1950년대 전 내무부장관이었던 백성욱 총장이 본교에 재임하고 있을 무렵, 남산 주위를 차를 타고 지나가던 이승만 대통령. 옆에 있던 보좌관에게, '저 남산 옆에 있는 건물은 뭐야?' 라고 묻자 보좌관, '전에 내무부 장관으로 있던 백성욱이 총장으로 있는 동국대학교 건물입니다' 라고 대답하니 이승만 대통령, '어, 그래. 그럴 땐.' 라고 대답했다.

산 중턱에 건물을 짓는 것은 위법이지만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웠던 총장 덕분에 건물이 무사히(?) 지어졌다고.

둘. 지난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당시 본교생의 지난 흔적이 모두 사라질 뻔 했다는데. 전쟁당시 본교의 건물이 거의 파괴되고 문서가 불에 탔지만 이에 교직원 중 한명이 학생들의 학적부를 들고 피난을 다니며 보존했었다는 이야기 셋.

본교 어딘가에는 6.25전쟁을 대비한 피난민 대피소가 숨어있었다는데. 바로 그 장소는 학림관 정면에 있는 인공폭포. 지금의 길모습은 인공 폭포이지만 돌을 드러내면 그 속에는 동굴이 위치하고 있다는 소문.

넷. 정각원 옆에 있는 불심탑 자리에 1971년에는 학교의 상징 동물인 코끼리 상이 있었다는데.

지상동물인 코끼리를 탑으로 만든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학생들이 코끼리상에 올라가려고 해서 불심탑으로 바꾸었다고.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 (왼쪽) 코끼리상의 제막식, (오른쪽) 학림관 앞 인공폭포.

▶ 본래 송정전으로 불리던 정각원은 경희궁의 정전으로 광해군 때 건립됐다. 송정전은 임금이 신하들의 조화를 받고 정령을 반포하던 중요한 곳으로 이후 1976년 동국대학교 안 정문 옆으로 이전됐다.

## 본교 주변 문화재 탐방

# 한번만 돌아보면 역사가 술술~

남산 한옥마을, 장충단 공원, 유성룡 집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본교 주변에 있지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숨겨진' 문화재라는 것이다.

본교 정문과 혜화문으로 내려가는 길은 장충단 공원으로 들어가는 길과 이어진다. 날씨가 따뜻하면 본교 학생들은 공원 내 이곳저곳에 모여앉아 이야기를 하거나 놀이를 즐긴다.

그런데 이렇듯 자연스레 우리와 친숙해진 장충단 공원은 단지 일반적인 공원이 아니라 문화재다. 장충단은 1900년 대한제국 때 고종이 을미사변과 임오군란으로 순사한 충신·열사를 제사지내기 위해 만든 곳이다.

그러나 1910년 8월 일제는 민족의 독립심을 억압하고 역사를 격하하기 위해 폐사하고 1920년대 후반부터 이곳 일대를 장충단 공원으로 이름 붙여 뱃나무를 심고 일본영웅의 동상과 이토히로부미의 보리사인 박문사를 건립했다. 광복 후 동상과 박문사는 철거되고 6.25전쟁으로 장충단 사당과 부속건물이 파손돼 현재 장충단 비만 남았으며 과거 제단이 있던 곳에는 '장충단터' 비가 있다.

또한 장충단 공원으로 들어가는 길 왼편으로 분수대를 지나면 돌다리를 볼 수 있다. '수표교'라 불리는 이 다리는 세종 2년 현재의 청계천 2가에 놓인 후 1920년 청계천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수표가 세워지면서 이같이 이름 지어졌다.

1959년 청계천복개공사로 신영동에 잠시 옮겨다가 6년 뒤 현재의 자리로 이전했으며 본래 수표교가 있던 중구 수표동에는 그 터를 알리는 비가 있다. 장충단 공원에는 이 밖에도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사명대사와 헤이그 밀사로 파견됐던 이준 열사 동상, 국권박탈에 대해 최초의 자결항쟁을 한 이완용 선생 기념비 등이 있다. 이렇듯 장충단 공원에서는 다양한 시대의 문화재들을 만날 수 있다.

후문으로 나가 대한극장 가는 길 좌측의 주유소 앞에서는 조선 중기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를 재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문신이자 학자인 유성룡의 집터 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한극장을 지나 충무로역 4번출구 앞에는 '남학당터' 비가 있다. 남학당은 태종 11년에 완성돼 1894년까지 지속된 조선시대 중등교육기관인 한성 4학당의 하나다.

옛 남학당 터를 지나 종대병원 앞 왼쪽 길로 들어서면 남산한옥마을의 입구가 보인다. 남산한옥마을은 지난 98년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으며 서울의 8대가로 불리던 사대부 집부터 일반서민의 집까지 전통한옥 다섯 채를 옮겨 놓았다. 오위장 김춘영 가옥, 부마도위 박영호 가옥, 도관수 이승업 가옥, 해풍부원군 윤택영택 재실, 순정효황후 윤씨 친가가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옥마을에서는 근대적인 학문으로써 국어학의 체계를 집대성한 이회승 선생 추모비도 볼 수 있다.

한편 정문 앞 신라호텔을 지나 국립극장 쪽으로 가다보면 국민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양하고자 건립한 3·1 독립운동 기념탑, 1919년 음력 3월 1일 아오내 장터 만세운동을 지휘한 유관순 동상이 있다. 그리고 남산에 오르면 동악이 배출한 걸출한 시인 조지훈의 시비가 오롯이 서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본교 주변 문화재들을 둘러보았다. 예전부터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던 본교 주변에는 이밖에도 크고 작은 문화재들이 많다. 이러한 본교의 장점을 살려 이제 한번쯤 친구들과 숨겨진 문화재를 찾으러 다녀보는 것은 어떨까.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① 장충단비.  
② 수표교.  
③ '유성룡 집터' 비.  
④ 부마도위 박영호 가옥(남산한옥마을)  
⑤ 3·1 독립운동 기념탑.







동약로

그들만의 축제



“오늘 개강 한마당 행사를 한다더니 딱도 나눠주네. 그런데 저 노란색 풍선은 뭐지”

지난 4일 개강 첫 주, 새 학기를 맞아 가벼운 마음으로 만해광장 옆을 지나던 두 학생은

“우리도 가서 딱도 받고 풍선도 받고 함께 참여하자”

이제는 일반 학생들과 함께 하는 흥겨운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학생회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행사 일정 대부분이 등록금 인상

이행 행사는 개강 첫 주부터 학생들과 흥겨운 분위기로 함께 어울리며 학내 문제를 공유해 나가려는 학생회의 노력이 엿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본래 행사 성격과 다르게 그동안 해왔던 방식 그대로 집회와 투쟁으로 학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한 점에서는 씁쓸함을 남긴다.

김지은 대학부 기자 bob83@dongguk.edu

소나기

듣기만하던 동국대 막상 와보니...



△1층이 건너편 아파트 6~7층이라는 것에 심히 통탄스럽군요. 비만 체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비만이 좋아지는데..)

올해는 3·8세계여성연 날 96주년기념이 되는 해이다. 여성노동자들이 사회적 기본권인 참정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며 싸웠던 1908년.



논단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선전부장

여성노동자에게 필요한 것

고용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여야 하며, 80% 이상이 여성인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보호입법 마련 시급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여성노동자의 요구 4가지를 모아보자. 그 첫째가 비정규직 보호입법 마련이다.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모성보호는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적용되느냐가 제도 정착의 성패요인이 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는 1차적인 과제는 비용을 전액 사회분담하는 것이다.

보육시설 확충·성희롱 방지

세 번째는 국공립 보육 및 방과후 시설 확대이다. 일하는 여성들은 임신, 출산, 영아보육, 유아보육, 방과후보육이 연속적으로 보장되어야 노동시장에서의 단절을 막을 수 있는데, 영아보육과 방과 후 보육은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다음달이면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4.15총선이 다가온다. 신문과 방송 매체들을 통해 이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고 시민단체들에서는 낙천, 낙선 운동 등 이와 관련한 활동들을 하기에 바빠 보이지만 정작 우리 주변의 반응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관심하다.

지방에서 서울로 학교를 온 주변 친구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이름조차 모르는 것이 태반이고 경기지역에 사는 학생들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몇몇 학교들에서는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대한 활동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데 분교 역시 이러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대학생이 꽤 처음 맞는 권리 행사 기회에 주저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투표를 하려는 학생보다 하지 않고 무관심한 학생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풍토가 만연된 듯 하다.

사회 각층에서 투표 참여 연계를 낮추자는 운동,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운동 등 여러 방법으로 시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역시 우리의 권리 행사를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는 의미 있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해에는 꼭 본교 학내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전체 학생들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세진(사과대 신병2)

일단 한번 용기내어 부딪혀 보자

아직 나도 대학교를 1년밖에 다니지 않아 새내기 티를 벗지 못한 후배 같은 선배지만 새내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대학생활을 잘 하려면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특히나 대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선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 갓 청소년의 티를 벗고 대학생이 되어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

이다. 어떤 새내기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새내기들은 동아리에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단과대학의 소모임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많은 유대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계획만 세웠을 뿐 막상 용기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등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용두사미가 되기 일쑤다.

하지만 이제 성인인 만큼 피하지 말고 일단 한번 부딪혀 보자. 자기가 적극적으로

으로 행동하고 먼저 다가가야만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다.

나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성격을 바꿀 수 있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나였지만, 대학생활을 하면서 일단 참여해보고 활발하게 사람들도 만나서 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도록 노력해 이전보다 나은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처럼 신입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무슨 일든 적극적인 행동으로 누구나 겪는 생활이 아닌 자신만의 대학생활 목표를 만들어 능동적인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재명(생자대 식품공2)

선·후배 지킬 것은 지킵시다

사람이 한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선후배가 생기기 마련이다.

나 역시 중·고등학교의 작은 사회를 거쳐 보다 넓은 대학이라는 사회에 와 이제 선배가 됐다.

그러나 대학 선후배 관계에서는 중·고등학교 때와 조금 다른것을 느낀다. 고등학교 때까지 선배는 그리 편한 존재가 아니었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선배는 나보다 이미 더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해주는 것이었다.

대학교에 들어오면서도 내 생각은 같았다. 때문에 선배는 물론 재수·삼수생

동기들까지도 꼭 대우해 주었다. 왜냐하면 분명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나에게 선배였을 테니 말이다.

이제 대학에 갓 입학한 후배 중에는 나보다 어린 사람과 동갑인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 후배들이기에 지킬 것은 지키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다녀오면서 나와 내 동기들은 다소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었다.

재수, 삼수 한 후배들이 나이가 같거나 연장자라고 먼저 말을 놓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었다.

나이로 따져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자신보다 1년 먼저 대학에 입학한 선배에게 그러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물론 선배라고 그 권위만 내세워 나이가 같거나 많은 후배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후배라면 선배가 먼저 권하기 전에 친구로 지내자는 등의 권유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새내기들도 1년 후에 후배를 만난다. 후배들 중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배가 됐을 때와 같은 생각을 할까라는 의문도 든다.

자신이 어떤 사회에 속하면 나이 등을 떠나서 나보다 경험이 많은 선배에게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상문(사과대 경제2)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동약광장 축하합니다. △43기 형들 이제 퇴임하네요 정말 잘가세요. △동국대 아마추어 야구부(L.A.E) 첫승을 축하합니다. 이경훈 감독 파이팅! △김공 강신재 3월 3일 여자 친구 생긴거 축하한다. (여러 해 동안 독수공방..) △3.12 축 탄생 김기덕 응. △S.J.H 장학금 축하해~! △돈이 없어도 즐거운 토요일 밤! △3.14 불교대 인철과 구자현 생일 축하하. △연수의 귀국 △정원아~ 득남 축하한다. 잘 길러라. △중규♡민형누나 forever △현진아 3월 10일 생일 축하해. △진주, 선희야 행정학과 간 것 축하해. △송이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오빠, 재대 축하해! △혁아, 당구 200년은 거 축하한다!

금주의 식단

Table with 4 columns: Date, Dongguk (동국관), Special (상륙원), and Staff (교직원). Rows list dates from 3/8 to 3/12 with corresponding menu items for each location.

지상논쟁을

# 등록금문제 해법은 없는가

제한한다

##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 학생의견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인상 대화자리 역시 타당성 설명회에 그쳐

올해 등록금이 7% 인상되면서 2000년부터 5년 동안 등록금이 40%가량 인상되었다. 학교측에서 학생들과의 대화 중에 1월 9일 04학번 수시모집 합격자들의 등록금 고지서를 일방적으로 7% 인상고지 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이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두번의 학교와의 대화와 세번의 학내 집회와 본관 항의방문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은 이유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명확한 이유가 있는 반대에기에 정당하다.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많지만, 우선 중요한 네가지 이유만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첫째, 등록금 인상이 일방적이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뒤 통보했다. 한가지 예년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학교는 이것을 아주 대단히 학생들을 배려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지서 발부 전에 등록금 인상을 알았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달라진 것도 없었다.

고지서 발부 전에 학교와 대화를 시작했다고 해서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화에서 그런 여지는 전혀 없었다.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니 학생들이 이해해 달라는, '학교와 학생의 등록금 관련 대화자리'가 아닌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 타당성 설명회'였다. 게다가 그 설명회 또한 어느 한 가지도 납득할 수 없었다.

둘째,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상 근거가 터무니없다. 앞에서 이야기 한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 타당성 설명회'에서 학교가 제시한 등록금 인상 근거로는 주요사업 관련 332억, 신규 교직원 총원 관련 27억, 교직원 인건비 인상 관련 55억, 물가인상 관련 13억으로 모두 428억 가량이 2004년도에 더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필요한 금액대로 등록금을 인상하려면 20~30%가 인상될 것이나 어려운 경제사정과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0% 이내로 인상을 결정하겠다" 라고 했다. 물가인상이나 교직원 임금인상, 신규 교직원 총원 등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2004년 예상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 지출만을 가지고 인상과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는 지는 것이다. 작년 2003년 이월 적립금은 얼마나 되는지 올해 2004년 예상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지출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다음달 예산을 계획할 때 다음달 월급을 비롯한 기타 수입을 기

준으로 지출을 계획하지 지출될 것을 먼저 계획하고 그 지출에 맞춰 수입을 예상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하지만 학교는 지출될 것을 기준으로 수입을 맞추고 있다. 그 수입을 맞추기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의 진짜 근거는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불가인상률, 교직원 임금인상 따위가 아니라 학교의 재정관과 재정구조의 문제인 것이다.

셋째, 학교가 등록금 인상의 구체적 근거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의 구체적 요인을 알 수 있는 자료인 2003년 결산 및 2004년 예산을 학교는 현재 공개를 거

이 문제는 등록금 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학교 수입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단의 책임은 방기된 채 학생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당국이다.

2000년부터 지난 5년간 등록금은 40%가 인상되었지만 재단전입금은 제자리 수준이며 그 중 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경상비전입금'은 2000년부터 0원이다. 이것은 바로 재단에서 학교에 투자하는 돈이 없다는 말이다.

더 심각한 것은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돈까지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나간다는 것이다. 재단에서 '법정부담금' 명목으로 들어온 돈은 5억인데 같은 명목으로 지출된 돈은 25억이다.(현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02년 결산)

그렇다면 그 차액인 20억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나간 것일까?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학교의 재정구조 상

**“학교 수입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단의 책임은 방기된 채 학생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당국이다.**

**2000년부터 지난 5년간 등록금은 40%가 인상되었지만 재단전입금은 제자리 수준이며, 학생들에게만 학교재정의 책임을 전가시키며 등록금을 인상하기에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다.”**

부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산 및 예산은 이사회를 통과해야만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한다.

하지만 경희대, 건국대를 비롯한 다른 학교들에서는 이사회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가 어느해 보다 자료 공개가 중요한 이유는 흥기삼 총장이 취임하면서 학생들과 약속한 병원회계와 학교회계가 분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는 믿어달라고만 한다. 학교를 믿을 수 없어서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당연한 학생들의 알 권리이고 이사회에서 통과되어 공개되는 5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

등록금이 책정되는 시기인 12월이나 1월에 공개되어야 하고, 지금 3월은 회기가 끝났기에 이사회를 통과하지 않았더라도 통과될 자료는 분명 존재한다. 학교는 이 자료들을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해야 한다.

넷째, 학생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학생들의 등록금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학생들에게만 학교재정의 책임을 전가시키며 등록금을 인상하기에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 학교가 발전하는 것을 학생들은 누구보다 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발전에의 부담이 학생들에게만 전가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한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반대한다. 책임 있는 재단의 역할이 전제되었을 때 학교와 학생이 동등한 입장으로 학교발전에 대해서, 등록금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야 한다.

임수욱  
총학생회 학원자주회투쟁 위원장

위 글에 대한 논박이나 '등록금 문제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 동약게시판



- 홍석강 교수 퇴직기념 강연회**  
3월 11일 오후 5시  
학림관 교육매체센터
- Cyber republic Festival**  
3월 8일~13일  
오전 11시~오후 6시  
동국갤러리
- 인도철학과 개강총회**  
3월 11일 오후 5시  
문의 011-213-9310
- 통계학과 개강총회**  
3월 9일 오후 5시  
명진관 A304
- 경향행정학과 동국관 사물함 교체**  
3월 19일 철거예정  
이때까지 짐 수거 바랍니다
- 행정학과 개강총회**  
3월 12일 오후 6시  
동국관 M307
- 경제학과 개강파티**  
3월 12일 오후 6시  
동국 할머니 집

- 경영학과(주간) 개강총회**  
3월 12일 오후 5시  
동국관 L401, 동국호프
- 식품공학과 개강총회**  
3월 12일 오후 6시  
원흥관 E317
- 산업시스템공학부 개강총회**  
3월 11일 오후 6시  
원흥관 E103
- 지리교육과 맞이잔치**  
3월 13일 오후 2시  
정보문화관 Q101
- 연극영상학부 45주년 기념 동계 워크샵 및 신입생환영공연**  
3월 4일부터 26일까지  
문화관 예술극장
- NEO-AD 개강총회, 개강파티**  
3월 8일  
동국관 M407
- 공대 영화학상 소모임 '이다산' '스콜 오브 락' 영화상영**  
3월 10일 오후 6시  
원흥관 E217

- 불교관련 교양교재 할인판매**  
동국대 심우장
- 손짓사랑회 공연**  
3월 8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12시 30분  
상록원, 불상당
- 여행동아리 Youth Hostel**  
새내기 모집  
학생회관 4층
- 정보산업대 사회과학 학술학회 소나무**  
새내기 모집  
원흥관 2층 빨간 문
- 컴퓨터 학술 소모임 C.A.P.S**  
18기 모집  
원흥관 7층
- 스키부 신입회원 모집**  
3월 8일~12일  
중도 및 동국관에서 원서배부
- 컴퓨터 연구회 DUCA**  
새내기 모집  
학생회관 4층  
문의 02) 2260-3682

##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가로열쇠**
- 본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한 금융기관. 은행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당선시켜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운동. 반)낙선운동
  - 3층으로 된 식당. 3층에는 교직원식당이 있다.
  - 대부분의 새내기들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설악산 등지로 이것을 다녀왔다. 신입생오리엔테이션의 우리말.
  - 지난 2월 학생들은 이것이 결정됐다. 전공결정과 비슷한 말.
  - 낙천·낙선운동을 하는 본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본지 해설보도면 참조.
  - '보다 나은 수준에 승부를 건다'는 뜻으로 'OO하는 인간이 아름답다'고들 한다.

14. '밀천으로 들인 돈'이라는 뜻으로 흔히 밀지는 일을 '이것도 못 찾는 일'이라고 한다.
15. 1956년에 지어진 석조건물로 본교를 대표하는 건물.
- 세로열쇠**
- 북한의 외교정책을 다룬 스타트 스나이더의 책. '벼랑끝 OO' 본지 학술면 참조.
  - 요즘은 학생들도 이 활동을 많이 한다. 정답에 가입한 사람.
  - 본교를 흔히 이것이라 부르기도 한다. 조선중기의 문인 이안눌 선생의 시호로 학림관 옆에 'OO선생 시당'이 있다.
  - 학과를 다른 과로 옮기는 제도. 본교의 경우 누계 평균 평점 2.5 이상이어야 가능.
  -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
  - 새내기들이 입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복장. 귀여운 스커트나 청바지가 더 좋다.
  - 정각원의 옛 이름. 본래 경희교의 정전이었으며 1926년 본교 자리로 이전됐다.
  - 극단 애플씨어터의 연출자 겸 대표로 본교 연극영화과 92년 졸업생. 본지 사람면 참조.
  - 본교 중앙당과 행정기관 등이 모여있는 건물.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는 발행일자 동대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답을 적어 본사 총무부에 응모해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 호 정답과 당첨자는 3월 22일자 신문에 게재됩니다.

편집자

## 똑똑한 '새내기 짱' 이 되자!

학생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캠퍼스에 무르익는 3월이 왔다. 이즈음 캠퍼스에서는 생기가 넘치는 발랄한 새내기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새내기들은 누구나 많은 꿈과 낭만을 갖고 대학에 들어온다. 그러나 자신이 대학에서 진정으로 꿈의 기반을 다지고 싶다면 무작정 노는 것보다 이 때부터 학업, 친구, 시간관리 등 모든 것을 두루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꼼꼼히 챙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제부터 알아차고 후회없이 새내기 시절을 보내는 똑똑한 새내기, 이른바 '새내기 짱'이 되는 법을 알아보자.

### '새내기 짱'의 시작은 출석

대학의 수업방식은 고등학교 때와 전혀 다르다. 뿐만 아니라 수업에 지각, 결강하는 것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로 인해 번번히 결강을 한다면 곧 '재수강'의 수렁에 빠진다. 특히 새내기들은 전날 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 휴유증으로 아침수업을 결강할 때가 허다하다. 신청학점은 정해져 있는데 재수강이 많다면 결국 졸업할 때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놀더라도 챙길 것은 챙기도록 하자. 대학 수업은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챙겨야한다.

또한 새내기는 장학금 장학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장학제도가 신청시기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장학금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생각보다 낮은 점수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환학생과 해외탐방장학생의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다. 새내기 때의 작은 노력은 이같은 장학제도를 바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게 할 수 있다.

### 많은 사람·경험이 곧 재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내기의 큰 부담이다. 그러나 학기 초 신입생환영회부터 개강과 티, 엠티 등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면 그것은 그리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학기 초의 이런 행사들은 누구나 마음을 열고 친해지려고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스펀 없이 선배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동아리나 학생회, 소모임 등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자. 특히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활동은 나중에 할 사회활동의 밑거름이 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하는 것은 후에 자신에게 소중한 재산이 된다.

### 공강은 '황금' 시간

새내기때는 유난히 공강시간이 많다. 이같은 공강시간에 본교 새내기들은 주로 근처 시내 또는 노래방 등을 다닌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금방 질리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시간에서 길게는 6~8시간의 공강시간을 잘 활용해 간단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 보자. 운전면허,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등 굳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라도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격증을 한두개쯤 따 놓는다면 보람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갖가지 유익한 강습을 수강하는 것도 공강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이다. 본교에는 요가, 스포츠댄스와 같이 흥미로운 교양강좌들이 많다.

시중에서는 수 만원하는 강좌가 만원대로 무척 저렴하다. 게다가 '전 강의 출석시 수강료 전액 환불'과 같은 이벤트를 여는 강좌도 많다.

공강시간을 활용해 이러한 강좌를 듣는다면 자신의 흥미와 적성도 키우고 경제적 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

### 그 밖에 챙겨야 할 것들

교복을 벗고 이제 자유롭게 자신을 꾸밀 수 있게 된 새내기. 지나치게 성숙해 보이는 옷과 메이 크업보다는 새내기만의 생기발랄함을 살리는 편한 의상과 한 듯 안한듯한 투명 메이커업이 좋다.

또한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새내기들이 사회생활을 맛보고 보다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더욱이 졸업 후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일을 한다면 부모님께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드리고 스스로도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금상첨화다.

지금까지 챙길 것은 챙기는 똑똑한 새내기 '새내기 짱'이 되는 비법을 다양하게 알아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내기 스스로 목표를 갖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자신이 대학에 처음 입학할 때 어떠한 마음이 짐을 가지고 있었는지 되돌아보자. 그리고 목표를 작성해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자. 대학생활의 첫 단추인 새내기 생활, 이제 자신만의 노하우로 누구보다도 '멋지게' 새내기시절을 보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 선배들의 말말말

#### 이런 새내기가 좋다

- 선배를 하늘같이 여기고 대우해 주는 후배
- 먼저 전화걸어서 "선배님, 밥 주주세요~"라며 애교부리는 후배
- 언제 어디서나 씩씩하게 인사 잘 하는 새내기
- 선배 주머니 사정을 먼저 알고 슬쩍 "오늘은 제가 밥 살게요!"라고 말하는 후배
- 밥 맡고 술 사달라며 "선배, 저 고민있어요"라고 말하는 후배
- 언제 어디서나 빠지지 않고 잘 먹고 잘 노는 후배가 이쁘다
- 누구나 그렇듯 호감있게 생각하고 이쁜 후배
- 부담없이 언제나 편한 동생같은 스타일의 새내기
- 말 걸 때마다 어김없이 웃는, 찌푸린 인상을 절대 볼 수 없는 새내기를 보고 싶노라면 어느새 기분이 좋아진다.
- 솔직히 후배라면 다 좋다

#### 이런 새내기는 정말 싫다

- 재수해서 원래 나와 나이가 같으며 먼저 말뚱 자고 말하는 후배, 정말 때려주고 싶다
- 선배한테 할 말 안할 말 가리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새내기는 정말 밉다
- 새내기답지 않고 나보다 세 살 짝은 많아 보이는 새내기는 무섭다
- 선배랑 얘기하는 자리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담배를 꺼내 무는 후배
- 술 잘 마시는 척 혼자 다 마시다가 나중에 취해서 몸도 제대로 기누지 못하는 후배
- 술 마시면서 은근히 자신이 고등학교 때 좀 놀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듯 말하는 새내기
- 여자 동기, 선배한테 은근슬쩍 짝꿍대는(?) 남자 후배
- 분위기가 파악 못하고 이 자리 저 자리에서 마치 "이곳은 나를 위한 무대다"는 듯 오버하는 후배

정리=문화부  
culture@dongguk.edu



# 학년...

### 정보마당

#### 취업

- 보명 엔비이로**  
모집분야: 환경공학과  
모집인원: 여자 1명  
접수기한: 3월 20일까지
- 주식회사 대양씨앤씨**  
모집분야: 안전관리  
모집인원: 00명  
접수기한: 3월 17일까지
- 현대자동차**  
모집분야: 연구개발 일반사무 외  
모집인원: 00명  
접수기한: 3월 17일까지
- 주식회사 토다코사**  
모집분야: 구매부  
모집인원: 00명  
접수기한: 3월 17일까지
- 삼성에버랜드**  
모집분야: 경영지원, 파크운영, 유통, 기술  
모집인원: 00명  
접수기한: 3월 16일까지

\*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팀(본관 3층)에 문의하세요.

#### 아르바이트

- 한글캘리그래피연구소**  
조건: 19-34세 여성  
인원: 30명  
시급: 4,000원  
접수기한: 3월 12일까지  
문의: 02)3702-2662,4
- 국립극장 안내원실**  
조건: 신장 165cm이상  
1, 2학년 재·휴학 여학생  
시급: 5,000원  
접수기한: 3월 12일까지  
문의: 02)2264-9807/2268-9475
- 대한생명 강남지역단 봉사센터**  
조건: 워드타이핑 능통자 우대  
일급: 30,000원  
접수기한: 3월 12일까지  
문의: 02)520-3951~4
- 한자 오자찾고 수정하기**  
업무기간: 3월초~4월말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시급: 3,500~4,000  
문의: 02)923-7994
- 교내영어특강 홍보물 배포**  
업무기간: 3월 한 달  
시급: 5,000원  
문의: 016-230-5063
- 포스터 부착, 팸플릿 홍보**  
시간: 하루 2~3시간

시급: 4,000원  
문의: 02)554-7284

**미디어(동국대점)**  
조건: 남  
시간: 오후 6~10시  
시급: 상담 후 조정  
문의: 02)2265-3617

**레스토랑 추억만들기**  
조건: 여  
시급: 상담 후 조정  
문의: 02)2266-3060

**베스킨라빈스(동국대점)**  
조건: 여  
모집인원: 1명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주말)  
시급: 상담 후 조정  
문의: 02)2276-0531

#### 기타

-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조건: 2학년 재학생  
(만 20-27세, C학점 이상)  
모집기간: 3월 15일 ~ 4월 10일  
문의: 02) 260-8537,8 (교내 학군단)
- 대학 군장학생 모집**  
조건: 1, 2학년 재학생  
(만 20-27세, C학점 이상)  
모집기간: 전반기- 4월 1일~5월 15일  
후반기- 8월 23일~9월 18일  
문의: 02) 260-8537,8 (교내 학군단)

### 한의학으로 풀어본 건강이야기

학생들에게 알기 쉬운 한방 건강 이야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한번 한의학이 될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상을 끄집어내어 그 안에 깃들인 질서를 찾아 그것을 건강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증진시키는 데 활용하는 것이 한의학이 아닌가 합니다. 글을 통한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꽃샘 추위가 찾아오는 이 맘 때면 잠깐 밤심하고 이른 봄기분을 낸 날이면 영락없이 찾아오는 것이 감기입니다. 방학을 마치고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겨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서서히 목에 따끔거리는 불쾌감이 느껴지고 코도 좀 막히면서 머리가 무거워지기 시작

합니다. 봄은 한의학에서 바람으로 대표되는 계절입니다. 한 번 잘 살펴보세요. 정말 봄엔 바람이 많은지, 불편하고 괴로운 감기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바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을 감싸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 주위에는 바람이 나쁜 기운으로 작용해 들어가는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옷은 조금 가볍게 입더라도 스카프 등을 이용해 바람을 가려주는 것이 좋으며 무리한 생활리듬의 변화로 인체의 저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최인화  
본교 한의과대학 교수

### 손으로 말해요

"나는 동국대학교 신입생입니다"



나는 동국대학교 신입생입니다

제공 = 손짓사랑회